

目錄法 理論에 대한 研究*

A Study on Theory of Cataloging

남태우(Tae-Woo Nam)**

목 차

- | | |
|------------------------------|------------------------------|
| 1. 緒 論 | 5.2.1 條文遵法主義의 理論 |
| 2. 目錄法 理論 研究의 諸 方法論 | 5.2.2 完全主義의 理論 |
| 2.1 機能的 接近法 | 5.2.3 書誌學的 理論 |
| 2.2 書誌組織化論의 接近法 | 5.2.4 實用主義의 理論 |
| 2.3 索引시스템으로서의 接近法 | 6. Seymour Lubetzky의 目錄法 理論 |
| 3. 目錄의 機能과 그 形態의 發展 | 6.1 目錄法 原理論 |
| 3.1 目錄의 機能 | 7. S. V. Houten의 目錄法 理論 및 觀點 |
| 3.2 目錄形態의 發展 | 7.1 目錄法의 黃金기시대 |
| 4. C. A. Cutter의 目錄法 理論 | 7.2 目錄法의 靑銅器時代 |
| 5. A. D. Osborn의 目錄法 危機論의 論理 | 7.3 目錄法의 鐵器時代 |
| 5.1 目錄法 危機論의 誕生 背景 | 8. 結 論 |
| 5.2 目錄法 危機論의 論理 | 參考文獻 |

초 록

본 논문은 목록법의 이론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목록의 기능을 분석해 보고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한 연구방법론도 규명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론에 따른 목록법의 이론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C. A. Cutter의 '실용성 이론', A. D. Osborn의 '목록법위기론'에서 분석한 조문준법주의 이론, 완전주의 이론, 서지학적 이론, 그리고 실용주의적 이론등 4가지 논리와 S. Lubetzky의 '목록법의 원리'와 그리고 S. V. Houten의 '목록법의 철기시대'에 나타난 목록법의 황금기, 목록법의 청동기, 그리고 목록법의 철기시대의 정신에 나타난 목록법의 이론을 비교분석하였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mainly to review and summarize the theory of cataloging.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ataloging. First, the objectives and function of the library catalog was analyzed. Second, According to this methodology was researched the Cutter's theory of 'convenience of the public' on the cataloging, Osborn's 'the Crisis of Cataloging' (legalist theory of cataloging, perfectionism theory, bibliographic theory and pragmatic theory) and Lubetzky's the theory of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and the last Houten's 'In the Iron Age of Cataloging' theory.

* 이 논문은 1997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논문 접수일 : 1997년 5월 28일

1. 緒論

도서관목록의 존재 이유는 접근개념에 바탕을 둔다. 전통적으로 자료는 이용자들이 그것들에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으로 서지통정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목록은 250여년 전에 시작된 오랜 혁신과정의 결과물이다. 그 당시에는 목록은 도서관 소장장서 내의 모든 자료에 대한 색인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생산된 정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이러한 정보에 대한 포맷의 증식은 단행본을 제외한 실제적인 모든 포맷들을 위한 색인기능으로서 목록을 구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검색의 도구로서 목록을 폼하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다행히 온라인목록의 기술은 목록 내에서 다른 정보원의 재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대적 측면에서 도서관목록의 채용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18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목록이 최초의 조문화된 규칙에 원리를 두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목록의 기초는 18세기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에는 서구학문이 위대한 발전의 시기였다. 그래서 도서관자료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용자들이 더 이상 정보자료 내용에 대해 서가를 따라 단순히 브라우징하거나 또는 이용자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비평적 규모의 이용자들의 요구가 도서관에 전달된 시기였다. 실은 목록의 존재는 이 시기보다 앞서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도서관 내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중

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 이전의 목록, 즉,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개별적 장서의 재산목록(inventory)으로서 기능하였다. 재산목록통정에서 이용자로의 변화는 도서관 내에서 목록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양식의 사고를 요구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도서관 내의 정보량이 개인이 통정할 수 없도록 증가됨으로써 목록은 정보탐색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목록은 단순히 도서관의 개별저작물의符信(tally)이라기보다 도서관에서 소장한 지식에 대한 색인으로서 봉사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가끔 목록이 재산목록의 통정장치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소장서 내에서 자료내용에 대한 색인으로서 보조적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목록의 목적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의 포맷도 변화된 것이다. 이를테면 카드목록, 책자형 목록, COM목록순 등의 발전이 그러하다.

18세기의 목록의 기능, 기술은 21세기사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한다. 해결방법은 21세기의 정보환경과 기술에 맞는 포맷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목록에서 아직까지도 효험이 있는 원리인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목록법 이론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서지통정의 중추는 표준화이다. 서지작성단체의 기능은 정보를 조직하고 모든 형태의 이용자들이 그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 그 자체는 양적으로 너무 많고 형태가 다양하며, 또한 이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이용요구와 행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보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검색도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표준화이다. 이 표준화가 형식화된 것이 이른바 목록규칙이다. 목록규칙이란 목록을 작성하고 편성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의미한다. 목록을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1) 각 정보자료에 대해서 무엇을 기술하여 그 정보자료를 설명하고, 2) 무엇을 단서로 하여 검색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전자는 기술목록의 이론이며, 후자는 접근점의 구축에 대한 이론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목록작성자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임의로 작성하게 되면 통일적인 정확한 목록이 되지 못하며, 이용에도 불편하게 된다. 따라서 목록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접근점이나 기입체의 작성에 대한 약속을 국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국제적으로 정보자료에 대한 목록레코드구축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목록레코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자료의 검색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접근점은 무엇으로 결정하여야 할지 모호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야기시키며,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관리상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목록레코드 구축에 필요한 요소 및 형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OPAC과 OPAC Internet 환경에서는 표준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케 하는 도서관업무에 있어서 목록규칙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

되기 때문에 Unesco, ISO, IFLA 등에서 수십년 전부터 목록규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에 많은 관심과 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록법의 이론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 제2장에서 목록법 이론연구의 세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목록의 기능변천과 그 형태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목록법 이론을 규명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규명하였는데, 그들은 C. A. Cutter의 이용자 중심의 실용성 이론, A. D. Osborn의 '목록법 위기론'에서 제기한 4가지 이론, 현대목록법 원리를 구축한 S. Lubetzky의 '목록규칙과 원칙론', 그리고 S. V. Houten의 '시대구분에 의한 목록법 이론'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이들의 이론은 목록법 이론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은 목록법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 목록법 구축의 원리가 되며, 동시에 이론 구축에서도 논리성과 철학성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연구결과와는 이들의 이론을 인식 여부는 차치하고 국내외의 표준목록법의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본 고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4명의 학자들의 이론규명은 비교방법을 적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2. 目錄法理論研究의 諸方法論

목록법은 'cataloguing'의 역어로서 목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또는 정보자료의 리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파일링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 Ph. Immroth에 의하면 목록법이란 "도서관자료의 색인작업과 파일링을 처리하는 정리작업의 과정이다" (Immroth 1971, 7)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목록법은 일개의 고립된 도서의 기술적 수법, 작업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며, 색인, 서지, 초록류의 리스트화된 검색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용어에 대한 전문용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 개개의 자료를 일정한 방침(목록법)에 따라 기술하고, 검색에 필요한 표목이나 청구기호를 기재한 기입을 작성하여 이것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 편성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가르키는 말이다...(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1996).

편목을 위한 서지레코드들을 준비하는 데 수행된 행위(ALA Glossary, 1983)

엄밀하게 목록을 위해 저록을 작성하는 과정이다(Prytherch 1987).

이상과 같은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서지정보의 기록에 관한 기법(기술법, 기입법), 둘째, 장서의 물리적 조직법과 장서 중의

개개 자료의 소재지시부여의 기법, 또는 개개 자료와 그 서지 정보의 연결법(서가분류법, 청구기호법), 셋째, 목록정보(자료개체의 소재정보, 요컨대 청구기호를 포함한 서지정보)의 조직·편성과 검색의 기법(기입법, 목록편성법, 분류목록법, 주제명목록법, 배열법)이다. 즉, '정보자료의 검색도구의 하나인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을 목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법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志村尙夫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접근방법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志村尙夫 1981, 15-18).

2.1 機能的(functional) 接近法

본 이론의 본질은 목록에서 어떤 기능을 구할 것인가라는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고래로부터 많은 목록담당자나 목록학자 간에 논란이 되어 온 이론이다. C. A.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의 서문에 언급된 '목록의 목적'에서 그 기능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S. R. Ranganathan, S. Lubetzky 등이 수정 보완된 기능을 언급한 것과, 그리고 1961년의 ICCP에서의 표목에 대한 국제적 토의와 저자서명목록의 기능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것과 일련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와 그들의 저작은 P. F. Quigg의 '목록법 이론' (Theory of cataloging)과 L. Jolley의 '목록법원리' (The principle of cataloging)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목록법을 기능적인 관점 또는 기능 중시의 측면에서 논하고 있는 것들의 대표라고 하겠

다. 기능적 접근법에는 표목의 기능, 특히 기본저록의 문제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2.2 書誌組織化論的(bibliographical organization) 接近法

이 접근법은 목록, 서지, 색인, 정보검색 등을 서지의 조직화로 보는 방법론이다. 즉 기록된 문헌이나 출판물을 조직하고 관리한다는 입장이며, 단순히 목록측면의 관점만이 아니고 주제접근이 가능한 분류나 주제명이나 서지관리적인 면에서도 목록법을 보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목록법, 색인법, 분류법, 서지, 정보검색 등을 서지조직화의 총괄시스템 중의 목록법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Shera의 '분류목록' (The classified catalog)과 '도서관과 지식 조직화론' (Libraries and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그리고 C. D. Needham의 '도서관 지식 조직화론' (Organizing knowledge in libraries: a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이 있으며, 또한 A. C. Foskett의 '정보 주제접근법'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도 서지조직화의 측면의 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며, 그들의 이론을 전공문헌에서 전개시키고 있다. 이들 학자군의 특징은 서명이나 저자 등의 서지적 사항(bibliographic item)보다도 기록문헌 중의 주제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든지 더욱이 도큐멘테이션적 사고에까지 미치는 점이 많다. 자료조직화에 대한 다면적인 각도에서 생각하면 목록법 및 목록을 서지조직의 광범위

한 사항으로 보는 시각이다.

또한 한편으로 UBC에 발상을 둔 ISBD처럼 서지기술을 주체로 해서 그 서지기록을 국제적으로 호환성 있는 것으로 하고, 또한 목록이외의 기술까지도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는 목록법도 이 범주로 볼 수 있다.

2.3 索引시스템(indexing system)으로서의 接近法

이 방법에 의한 접근은 우선적으로 파일링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색인언어의 통제 및 색인어의 배열방법, 순위 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목록법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J. Kaiser의 체계색인법('Systematic indexing')에서 의미있는 주제어의 배열을 중심으로 목록법의 접근을 시도한 것과 또한 E. J. Coates의 '주제목록론: 표목과 구조' (Subject catalogues: heading and structure)와 B. C. Vickery의 '학문분류와 색인법' (Classification and indexing in science)으로 연결되는 계보를 형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영국인들의 색인시스템적 관점이 많이 반영된 논리이다.

이들의 문헌에서 제기한 목록법 접근의 특색은 파일링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패킷분류의 수법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목록과 분류, 색인시스템에 그 사고를 기초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접근방법 이외에 기술문헌정보처리방법으로서 1) 도서관적처리(library

processing), 2) 서지적처리 (bibliographic processing), 3) 정보적처리 (information processing)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도 있다. 1)의 도서관적 처리는 도서관 고유의 자료조직으로서 목록작업, 분류와 카드작업, 파일링, 서가작업 등이며, 2)의 서지적 처리는 서지기술, 참고용 카드의 파일과 서평파일, 카드 복제 등, 3)의 정보적 처리는 문헌의 배포, 수집정보의 통지, 초록 작성, 기술정보의 번역, 마이크로필름과 사진 복제의 처리, 특정주제에 대한 선택 수집, 참고용 정보파일의 작성 등의 3가지로 보고 있다. 색인시스템으로서의 접근법은 상기의 3)의 정보적 처리의 대부분과 1)의 분류카드 및 파일링카드나 2)의 참고나 서지파일링카드의 파일링 등이 3)의 접근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목록법에 대한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지만, 3구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록법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규명할 수 있으며, 그 연구방법도 확일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3. 目錄의 機能과 그 形態의 發展

3.1 目錄의 機能

형태와는 별개로 어떤 목록이든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부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S. Lubetzky는 “회의나 전문적인 문헌에서 목록법을 논의하는데 가장 괴롭고 곤욕스러운 질문의 하나는 목록의 기능

이다” (Lubetzky 1956, 213)라고 기술한 바가 있다. 많은 목록학자들에 의해 목록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목록에 어떤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해 보면 1) 검색의 수단이 되는 저자, 서명, 주제 등의 문헌을 검색하고, 2) 그 문헌의 물리적 기술이나 주제내용에 의해 타 문헌과의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고, 3) 목적으로 하는 문헌의 소재 위치어로 안내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 검색의 수단을 부여하는 기능 + [검색기능]
2) 물리적 기술·내용을 나타내는 기능 + [식별기능]
3) 소재위치 안내기능 [소재지시기능]

<표 1> 목록의 기능

이상과 같이 검색기능, 식별기능, 소재지시기능 등의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서 목록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목적이나 기능을 논한 이론들은 많다. 서지통정을 위한 도구의 디자인은 목적의 기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의 목록의 목적은 1세기 전에 C. A. Cutter에 의해 공식화되었다(Cutter 1876, 10). 그는 1)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 서명, 주제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 도서관 소장서를 주어진 저자, 주제, 문헌의 유형

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3) 판차나 문학적인 유형으로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언명하였다. 이러한 Cutter의 목적은 120여년이 넘도록 도전받지 않은 채로 지속되어 왔는데 그동안 목록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기반뿐만 아니라 목록의 규칙 및 기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목록법과 목록의 유지와 연관시키면 비용을 상관치 않는 우려되는 표현이지만, 이들 목적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논점들은 최초로 명료화된 이래로 세기가 지나도록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목록의 기본적인 목적에 관해서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세기 이상 목록 전문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원칙으로서 이들 목적은 저작성의 원칙에 의해서 최고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서지적 단위를 위한 표목은 그 저작의 지적내용에 주로 책임이 있는 개인명 또는 단체명까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ubetzky의 2번째 목적의 재언급과 함께 최초로 개정에 대한 제안이 1853년에 있었다(Lubetzky 1953, 36). 그는 “첫째, 특정 출판물, 즉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저작의 특정판의 소재위치를 제공해 주며, 둘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의 판과 저자의 저작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을 기능으로 논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저자에 의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저작과 주어진 저작의 어떤 판 또는 번역본을 하나의 형식인 저자명 아래 목록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Lubetzky와 Cutter가 언명한 목적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다양한 판과 그것의 다양한 번역본과 같은 저작의

다양한 물리적인 표시의 병렬을 분명히 요구한다. 물리적 근접성에서 모아지거나 배열될 수밖에 없는 저작의 다양한 판은 Cutter의 3번째 목적만을 의미하지만, 흥미롭게 그 목적이 목록의 목적을 논의할 때는 종종 간과하게 된다.

목록의 목적에 대한 Lubetzky의 재언급이 있었던 이래 4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Cutter가 언명한 7가지 목적보다 더욱 극적인 목록의 하부구조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목록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협동목록이 국제적 기준, 세계적 목록, 그리고 링크시스템의 출현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Cutter가 최초로 언명한 ‘목록의 목적’은 여전히 활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961년에 파리에 개최된 국제목록 원칙회의(ICCP)에서 목록의 ‘목적’이란 용어 대신에 최초로 ‘기능’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목록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ICCP 제2조 목록은 이하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2.1 도서관이 어느 특정도서를 소장하고 있는가, (a) 저자와 서명 또는, (b) 저자가 만일 도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또는 (c) 저자나 서명이 만일 식별하는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적절한 서명의 대응어로

2.2 그 도서관에는 (a) 특정저자의 어떤 저작이 그리고 (b) 특정 저작의 어떤 판이 있는

가를 알려주는 기능이다(Verona 1971, xiii).

상기의 기능들은 Cutter가 1876년에 언명한 목록의 목적을 적절하게 재언급한 것이다. 2.1조 (c)의 저자나 서명이 도서의 식별에 부적합한 경우 '적절한 서명의 대용어'는 형식 표목이나 관습적인 표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Cutter가 제시한 형식기입과 문학적 유형에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 ICCP에서 목록의 기능을 논의할 때에 저자·서명 목록을 중심으로 표목 등의 선정과 형식의 원칙에 대하여 다수 국가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문헌 접근의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는 AA Code(1908), ALA rules(1949) 등보다도 진일보된 간소화와 기입의 구성과 종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어 종래의 알파벳순 목록의 검색기능을 재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F. H. Ayres가 Cutter가 천명한 목록의 목적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언급하고 있는데 목록의 현대적 관점과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내용은 다음과 같다(Ayres 1995, 12-13).

1. 어떤 포맷이든 저작이 명시하고 있는 알려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A) 그 이름의 어떤 형태이든 저자
 - (B) 서명 또는 다양한 형식 중의 하나
 - (C) 주제
2. 명시에 의해 소장된 것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지방으로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 (D) 그 이름의 어떤 형태이든 주어진 저자에 의해
- (E) 서명 또는 다양한 형식 중의 하나
- (F) 주어진 주제상
- (G) 주어진 문헌의 유형

3. 선택한 것을 명시에 유용성을 확립시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H) 지방
- (I) 지역
- (J) 국가
- (K) 국제적으로

4. 저작의 선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

- (L) 판에 의해(서지적)
- (M) 특성에 의해(문학 또는 주제)
- (N) 범위에 의해

요약컨대 목록의 주요한 기능을 종합해 보면 서지적 기능과 물리적 기능으로 대별되며, 여기에 검색기능, 식별기능, 선택기능, 소재지시기능 그리고 배열기능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Ayres가 확장전개시키고 있는 목록의 기능을 적용하고자 한다.

3.2 目錄形態의 發展

목록의 형태는 인간의 지식 전달 매체의 발전과정과 도서관 문화의 발전과정에 적합한 형태로 변천하여 고대의 점토판에서 오늘날의 온라인목록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형태에로의 발전은 서지통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D. Davinson에 따르면 서지통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성격을 구분해 주고 있다. “1) 인류의 지식·정보를 누적하는 출판물, 비출판물, 인쇄물·시청각 자료,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기록을 가장 적절한 시스템으로 제작하고, 그것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다. 2) 그것을 서지, 색인류에 의해 실현된 서사기록, 인쇄기록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서지조직화’(bibliographic organization)로 볼 수 있으며, 서지, 색인류를 매체로 하여 효과적인 자료검색과 동의어로서 설명된다. 3) 인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체계적으로 리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료의 가장 효과적인 배열방법이다(Davinson 1985, 7-8). 이러한 성격의 서지통정은 자료를 분류·목록하고, 초록·색인을 작성해 줌으로써 자료에 물리적으로 접근(physical accessibility)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료내용에 대한 접근(content accessi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가 목록의 기능에 가깝고, 후자는 초록이나 색인의 기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목록도 결국 색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2.1에서 설명된 목록의 기능은 이 양자의 접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기능으로 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桂啓壯에 의하면 도서관 목록의 각종형태의 발전 파생순서를 제 1단계에서부터 제 8단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고 있다. 각 형태는 단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여 미래에도 그렇게 발전되어 가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OPAC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검색도

구의 기능과 목적이 기존의 목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도록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제한적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공개적, 논리적인 공간, 목록중심이 아닌 전문중심, 소유개념이 아닌 공유개념, 자료중심이 아닌 서비스중심, 시간의존적 서비스가 아닌 시간 독립적 서비스라든가 또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표준문제가 사소한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등 상당히 많은 요소들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OPAC의 장래는 컴퓨터기술, 네트워크의 기술 등, 소위 정보기술의 발전, 전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특히 WWW(이하 Web으로 약칭함) 서버의 급속한 보급은 종래의 telnet형의 인터넷 OPAC에 비해서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우수한 즉, 이용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Web OPAC을 등장시켜 멀티미디어 OPAC까지도 예견하고 있다. ANSI/NISO의 Z39.50 내지 ISO의 10162(Search and Retrieve Service Definition, 1991)와 10163(Search and Retrieve Protocol Specification, 1991)에 대응한 Web OPAC이 인터넷상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 요소들의 변화로 인하여 목록형태도 다음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OPAC의 변용과 동향을 중심으로 목록의 변화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책자형목록

제2단계 : 카드형목록

제3단계 : COM목록

제4단계 : MARC, 단관수준의 OPAC

- 제4단계 : 온라인 네트워크목록, 도서관 간 네트워크의 OPAC
- 제5단계 : 인터넷 OPAC (TELNET/text 형)
- 제6단계 : 인터넷 OPAC (Web / hyper text형)
- 제7단계 : 인터넷 OPAC (/Web/Z39.50/ hyper형)
- 제8단계 : 인터넷 [서지복합체] (Web/Z39.50/hyper text, 멀티미디어 형)
- 제9단계 : CD ROM 목록
- 제10단계 : 슈퍼목록 (supercatalog)

4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를 설정하고 있는 학자는 桂啓壯(1995, 264)이며, 10단계의 목록은 C. Oberman(1991, 198)이 상징한 것이다. 특히 Oberman은 기술의 진전으로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슈퍼목록이 탄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지칭되는 슈퍼목록은 4단계에서 8단계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 목록의 개념인지 아니면 OPAC 다음세대를 의미한 것인지는 명확지가 않다. 다만 W. Shaw에 의하면 “슈퍼목록은 1) 장거리의존형 (distant-dependent)이다. 2) 1대의 컴퓨터 상에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탑재되는 다중소장자료를 포함한다. 3) 레코드의 내용에 의해 제한된 것만을 접근점으로 가지는 것 (Shaw 1988)이라고 하였다. 슈퍼목록의 개념은 어떤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일접근점으로 지역도서관 소장정보, 그리고 기타 도서관 소장 자료들, 정간물, 초록 및 색인, 국가서지유틸리티,

백과사전 등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러한 조건들로 볼 때는 상기목록의 7~8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재의 정보기술환경에서 목록의 최종단계 즉, 다음 단계의 목록 형태를 ‘슈퍼목록’, 또는 ‘하이퍼목록’의 개념까지 설정하였다.

상기의 이러한 목록의 발전에 따라 목록법도 개정,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목록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지식발전, 매체의 변화, 정보탐색행태의 변화, 검색도구로서 서지적도구로서의 기능 변화, 정보환경의 급변 등으로 목록의 형태는 재산목록에서 현재의 OPAC, 그리고 슈퍼목록의 단계에까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에 논리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목록법 이론’을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4. C. A Cutter의 目錄法理論

Cutter의 목록법은 저자명, 서명, 주제명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한 사전체 목록의 편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Cutter가 확립시킨 목록법의 이론적 근거는 현대목록법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목록법과 목록규칙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는 “목록법은 기술이지, 과학은 아니다 (Cataloging is an art, not a science). 어떤 규칙도 경험과 현명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험 결과의 어느 부분은 규칙에 의해 가장 잘 확정할 수 있는 것 (Cutter 1904, 6)이라는 인식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다. 또한 사전체 목록규칙의 사상적

근거로서 “목록작업에 관한 수세기 동안에 걸친 인간의 경험에서 이론을 구했으며, 편목에 있어서 Cutter 자신의 경험, 특히 Boston Athenaeum도서관의 사전체 목록작성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동시대인에 의해 만들어진 목록규칙으로 그 이론 및 원칙은 Cutter의 주의 깊은 연구에서 탄생된 것(Dunkin 1969, 1)이라고 Dunkin은 주장하고 있다.

사전체목록규칙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은 항상 목록의 용이성보다 우선이어야 한다(convenience of the public is always to be set before the ease of the catalogue)” (Cutter 1904, 6)는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즉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이라 함은 “항상 목록은 이용자에게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또한 어느 특정도서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서명, 저자, 주제명의 형식에 의해 도서를 검색하는 문제를 논하였으며, 그리고 주제명에 있어서 주제를 잘 선정하여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남태우 1982, 56).

Cutter에 의해 처음으로 집대성된 목록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Cutter는 목록작성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자료검색습관을 근거로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것은 목록법의 설정에 있어서도 항상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 1원칙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는 이 원칙하에서 도서관에서 서지통정이나 소장통정에 관련하여 이들을 위해 행해지는 다양한 작업의 간편이나 경제성이 희생당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제 2원칙은 이용자들이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제로 자료를 검색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여 주제어(구)로부터 목록기술을 기입하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주제어(구)를 표목, 즉 주제명표목의 설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법상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제명표목으로 채택된 모든 용어는 분류구분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가 아니고 자료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한정성이 높은 것을 선정하고, 이러한 용어가 목록에서 시종일관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단순히 도서의 표제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주제명표목으로 선정된 용어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의미하는 동의어와 유어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이 다른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명표목으로 선정된 경우에 그러한 주제명표목 간의 주제관련성(syndicatic structure)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용어를 참조어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원칙은 목록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Cutter에 의하면 목록의 기능은 단순히 특정저자의 특정저작의 검색목록으로서만이 아니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특정저자의 저작의 모든 자료가 검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목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양분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검색 리스트이며, 나머지 하나는 저자의 저작물, 그리고 저작물들의 모든 판 및 번역 등과 같은 저작단위(literart unit)들을 한곳에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그의 사전체 목록규칙에서 천명하고 있는 유명한 목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a) 저자나 b) 서명이나 c) 주제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도서를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 도서관소장장서를 d) 주어진 저자에 의해서, e)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f) 주어진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 도서의 선택에 있어서 g) 판차(서지적으로)나 h) 특성(문학적 또는 주제)으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Cutter 1904, 12)

라고 정의하여 차후의 목록이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목적 1은 도서관 목록은 특정문헌을 위한 검색리스트(finding list)로서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매 도서에 대한 개별적 기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저자, 서명, 그리고 주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목적 2는 도서관목록은 저작집단을 위한 검색리스트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매 저작집단을 위해 통일기입의 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목적 3은 목록에서 문헌기술을 취급한 것이다. 이 목적에 따르면 기술은 주어진 문헌의 다양한 판간의 특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3가지 목적에 대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 a)는 매우 분명한 논리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필요한 참조와 함께 저자기입들은 이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다. 목적 b)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한 것은 서명기입들이다. 이 목적은 개인 저자의 저작인 경우에 두드러진 서명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서명기입이 기본기입으로 예컨대 정기간행물, 무저자명저작 등과 같은 모든 문헌들을 포함한다. 목적 c)는 최적의 논리이다. 주제기입과 참조는 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d)는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논리이다. 필요한 참조와 함께 한 저자기입은 목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규칙들이 어떤 저자가 다양한 필명이나 또는 이름을 바꾸어 가며 저술할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상세하게 마련되어야만 한다. e)는 주어진 주제 그리고 관련 주제 아래 기입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f)는 형식기입과 언어기입을 포괄하는 것이다. 형식기입들은 사전류, 백과사전류, 연감류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목적이다. 그러한 기입들은 사전체목록에서 선택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 형식 아래 포함된 자료리스트는 막대한 양이 될 수 있다. 분류목록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다. g)는 저작의 기술목록의 이론을 논한 것이다. Cutter는 필요할 때마다 이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기와 함께 판과 발행사항을 제공하였다. 각 기입들의 상세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기초하여 도서관마다 또는 목록작성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게 결정할 수 있다. h)는 문헌

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기를 위해서 제공된 것이다. 대규모의 도서관의 목록에서는 이들을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Cutter가 열거하고 있는 목록의 기능으로서 a) b) c)는 일반적으로 검색기능이지만, d)는 어느 저자의 저작에 관련된 것을 모으는 기능으로 예컨대 필명, 관용명 등의 명칭에서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e)는 Cutter의 사전체 목록의 목적으로 즉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것으로 주제명과 분류기호에 의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f)는 형식기입으로 주제명의 형식기입(사전, 인명록, 색인, 소설, 시, 연극 등)으로부터의 검색기능으로 Shera가 지적한 바 있는 형식, 문학상의 양식의 검색기능이다. 이상 a)에서 f)까지는 검색의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특히 d) e)에서도 관련문헌이나 주제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g)와 h)는 물리적 기술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식별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다. g)는 목록기술에 관련된 내용이며, h)는 목록의 주기에 관한 것이다. 결국 Cutter의 목록법 이론의 근간은 목록작성자의 논리보다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목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목록의 실용성 이론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실용성 이론은 이후의 목록이론의 구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이론을 재정립하고 추종한 학자들은 A. Osborn, S. Lubetzky, V. Heurton 등에 이른다.

5. A. D. Osborn의 目錄法 危機論의 論理

1941년에 발표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킨 A. Osborn의 목록법 위기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목록법 위기론의 탄생 배경과 여기에서 제시한 목록법의 4가지 이론을 구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5.1 目錄法 危機論의 誕生 背景

1908년에 발행된 AA Code는 그 사용과정에서 많은 비평을 받았고 처음부터 그 규칙의 한계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1901년부터 배포되기 시작한 의회도서관의 인쇄카드가 미 전역으로 보급됨에 따라 도서관에서 목록의 통일문제 및 기술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목록의 표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져서 계속적으로 야기되는 목록작성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록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ALA에서는 1930년 목록규칙개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회도서관의 Charles Martel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규칙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1908년판의 보충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1908년판을 기초로 한 개정작업이 ALA와 LA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지만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1941년에 ALA단독으로 목록규칙개정분과

위원회에 의해서 '1941 예비판'이 출판되었다. 이것은 1908년판을 보충 확대시킨 것으로 제1부는 '기입과 표목', 제2부는 '도서의 기술'로 구성되어 전문 375조 408페이지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를 취급한 상세한 규칙이기는 하나 단순히 조문을 증가시켜 원칙 없이 경험을 성문화시켰으며, 예외규칙이 많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비판의 최선봉에서 Osborn은 이른바 '목록법위기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5.2 目錄法 危機論의 論理

1941년에 Andrew Osborn은 '위기는 목록의 역사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50여년 전의 외침이지만 '위기'는 여전히 활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 그림자가 활동하고 있는 1990년대의 상황, 즉 목록의 복잡성에 대해 매일매일 파악해야만 하는 걱정되는 위기 상황과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유명한 '목록법 위기론' (The Crisis of Cataloging) (Osborn 1941, 393-411)의 발표 경위는 다음과 같은 목록법 분석에서부터 기인한다. 1941년에 발행된 ALA 목록규칙에서 그 당시의 규칙 작성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위원들이 현장 사서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다는 면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취급한 발전된 목록규칙을 제시한다는 시도(Daily 1968, 419)였으나 "지나치게 상세하고 번잡하여 목록작성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

유로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ALA 1949, viii).

그 중 대표적인 학자가 Osborn이다. 그는 '목록법의 위기론'에서 "서지기술에 있어서의 모든 가능한 변화는 예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발적인 경우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규칙이란 준비될 수 없다(Daily 1968, 419)고 역설하고 목록작성이란 간단한 규칙에 근거한 하나의 기술로 보고 목록의 이론과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41년의 ALA 개정규칙은 목록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목록법의 4가지 이론인 1) 條文遵法主義的 理論 (legalist theory of cataloging), 2) 完全主義的 理論 (perfectionism theory), 3) 書誌學的 理論 (bibliographical theory), 4) 實用主義的 理論 (pragmatic theory)을 논의하면서 그는 가능한 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세한 규칙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한 1941년판의 규칙은 조문준법주의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즉 그것은 원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규칙과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목록규칙의 실용주의하에서는 규칙과 정의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규정된다고 Osborn은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다. 실용주의적 목록법은 개별도서관들의 요구에 적용되는 것이다. 목록작성자들은 모든 세부사항에 관한 권위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들의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Osborn은 19세기 도서관 실무에 존재하였

던 불통일의 혼돈상태로 돌아갈 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매우 관심을 끌고 있는 1941년의 규칙에 관련하여 한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문화는 상식과 원칙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Codification tends to obscure reasons and principles)고 하였다(Osborn 1941). 기본원칙으로 회귀하지는 Osborn의 명쾌한 주장은 도서 관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 내용은 팜플릿으로 제작하여 미전역의 사서들에게 배포되었다. 많은 사서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어떤 사서들은 그것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였다.

요약컨대 그의 목록법의 원리는 항상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목록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케 하는 간략한 목록규칙의 제정을 강하게 제창한 것이다. 이것은 비록 1941년에 제기된 이론이지만 목록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원칙성명에 대해서 E. J. Hunter는 “목록이론에 있어서 전형적인 진술로서 목록규칙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마련한 것(Hunter 1974, 71)으로 평가하고 있다. Osborn이 제기한 4가지 이론을 규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5.2.1 條文遵法主義的 理論 (legalist theory of cataloging)

Osborn이 제기하고 있는 이론 중 가장 지배적인 이론의 형태는 조문준법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목록작성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과 정의가 있어야 하며, 문제되고 있는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하며, 이 권위는 목록부서장의 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논쟁중인 대부분의 사항이 대개는 목록책임자의 기호나 판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수많은 결정들이 결함을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조문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상기의 이러한 논리 때문에 상당수의 목록가들은 일련의 정의, 규칙, 결정, 그리고 선택이 목록 비용을 감소시킬 것임을 옹호하였다. 만일 모든 것이 규칙 속에 포함되었다면 더 이상의 논쟁이나 시간 허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조문준법주의 이론의 단점은 1) 모든 작업을 성문화시킴으로써 불명확하지 않는 것까지 무리하게 조문을 작성하는 것, 2) 성문화 작업이 상세함이 지나쳐 개정작업이 무한으로 계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규칙의 원리가 모호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유효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목록규칙이 라고 하기보다는 목록규칙을 위한 조문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이반되는 방향이다.

5.2.2 完全主義的 理論(perfectionism theory)

목록에서 준법주의적인 접근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주요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완전주의와 서지학적 이론을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는 약간 존재한다. 완전주의적인 목록자

는 도서를 목록할 때 모든 측면을 수용한다면 작업이 한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경우이다. 1935년에 LC가 그러한 노선에 따라 목록의 정의를 공표하였다. 목록카드에 대한 각각의 세부사항은 권위있는 기관에서 검토되고, 어느 것도 생략하지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는 생산물에 만족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목록에서 완전주의자들의 이론 뒤에 숨겨져 있는 오류들은 어떤 목록자도 지금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한 세대들의 편목자들은 여전히 전임자의 업무를 되풀이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래된 도서관의 역사를 보면 분명해진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1764년 이래 12가지 이상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완전주의적 목록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막대한 양의 자료에 당황해 하고 있다. 도서관들이 상당량의 편목지체물을 누적시킨 결과 자료는 종종 일시적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또는 작업을 후일에 좀더 완전하게 다시 처리할 계획으로 레코드가 부적절하게 또는 임시방편으로 작성되기도 하며, 그리고 내내 편목의 비용이 증가된다. 아마도 편목자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만일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업무로부터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과거에 수행한 것을 세련되게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 훨씬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완전주의에 대한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에 편목에서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이 요구

된다 할지라도 완전주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데는 필요하지가 않다. 시간적 요소가 완전주의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목록은 단숨에 생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목록은 많은 모순과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많은 모순과 불합리점은 완전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요약컨대 완전주의적 이론에 의하면 1책의 도서를 어떤 측면에서든지 검토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점에서 기술로서 완벽한 목록을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완전주의와 효율주의를 종종 혼동하고 있는 듯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5.2.3 書誌學的 理論(bibliographical theory)

목록과 서지와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양자가 많은 연관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또한 그들의 역사는 많은 측면에서 상호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록의 서지적 이론은 기술서지분야 내에서 목록을 작성하려는 시도이다. 대조사항과 서지적 주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세하게 기술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세 정보는 자신의 위치에서는 정당하고 적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일의 목록작업에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여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약요소가 된다.

예컨대 오늘날 발행되고 목록되어야 할 많은 자료처리과정이 있다. 서지적 상세도를 지

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모든 목록 기입에 취해질지도 의문스럽다. 경비면이나 이용효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에컨대 “Head and tail pieces”, “Title vignett”, “Illustrated lining-paper”와 같은 기술주기들은 실제로 도서관이나 또는 서지 적기능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목록만 채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기술주기들은 다행히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Kaiser에 의하면 목록의 평가기준은 “도서관에서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시키는데 최소의 비용과 노력”이라고 하였다. 서지학적 목록의 문제점은 반드시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목록은 기껏해야 이용자와 책과의 사이에서 장벽일 뿐이다. 도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토가 된다. 이것은 서지학적 관점에서의 목록의 이론을 의미한다.

일반도서나 회귀도서는 보통 서지적기술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하나는 평범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많은 기술사항들을 제공해야 하는 인쇄본 서지이기 때문이다. 향토자료에 속한 것이거나 매우 잘 개발된 특정의 장서들은 종종 보다 세밀한 기술작업을 요구하는 중간형태의 도서들이다. 그러한 도서들은 평범한 소장서로 취급되지도 않고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잘 알려진 서지에도 목록이 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5.2.4 實用主義的 理論(pragmatic theory)

개별도서관의 정책에 합치된 목록작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입장의 요구에 대응한 목록 규칙을 적용하는 이론이다. 대다수 도서관들은 실용적인 방침하에서 그들의 목록작업을 수행해 왔다. 규칙수립과 결정은 실용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서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 흐른 것은 없었고, 규칙과 정의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없었다. 계속되는 도서관의 실용적 요구로 규칙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서관 목록의 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조문준법주의적 목록자의 입장에서는 이 이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생략과 충분한 전거를 점검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반면에 서지적목록자는 그 일이 절반만 이루어져도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

Osborn은 많은 소수의 문제들을 일반화하고 간과시키고 목록작성이나 목록규칙에 실용적 이론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발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목록의 모든 관행은 의미있는 것이며, 도서관은 어떤 요소의 존재 유무를 차치하고 주어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여부를 알아야 한다. 에컨대 기선(hanging indention) 사용의 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규칙에 기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나 결함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목록규칙의 기능이다. 그래서

- 도서관이 특정의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2) 목록법의 3가지 분명하고 인정된 등급은 규칙과 많은 도서관에서 다음과 같다. 이들은 표준목록, 단순목록, 상세목록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취급되는 도서의 종류는 상술되어야 한다. 표준목록은 1908년 규칙과 이전에 요구된 LC보다 상세도가 덜할 것이다.
 - 3) 더구나 서가목록방법은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시명감, 대학목록, 서류, 개가제상의 거대한 질의 복권, 주제에 의해 배열된 팜플렛과 기타 임시적인 자료, 오락적 독서를 위한 특별장서, 전화번호부, 그리고 버티컬파일의 자료 등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소수 또는 전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용은 증가일로에 있다.
 - 4) 목록규칙은 부분적으로는 예외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는 사례를 포함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규칙수가 적고 간단하다. 목록규칙의 개정은 그 후로는 약간의 변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전체 자료유형들은 재목록화할 필요가 없게 된다.
 - 5) 필수적인 요소만을 목록하기 때문에 작업의 질은 높게 된다.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간과될 것이다.
 - 6) 편목자는 매번 그들이 안내할 선례나 규칙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판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만일

- 목록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면 지적인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편목자의 판단을 이용토록 한다면 작업은 다시금 매우 흥미롭게 될 것이다.
- 7)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 규칙과 관행은 동일한 실용적 관찰을 요구한다. 예컨대 소수의 편목자들은 부출지시에서 주제명의 체계는 어떤 요구사항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쇄되거나 등사된 카드에 관심을 갖는 도서관을 제외하고 그러한 세부사항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이며, 심지어는 그 가치조차도 의심스럽다.
 - 8) 어떤 점에 대한 해석은 실제적인 노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어떤 도서에 초상화가 삽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의 풍자만화, 동전의 조각상 혹은 묘비의 초상화이든 차치하고 그것들은 형태사항에서 초상화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부분의 인위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고 명백한 처리과정을 무시한 데서부터 기인한다.
 - 9) 연속간행물과 비도서자료의 편목은 이런 자료의 종류가 어떤 범위의 목록을 요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가령 정부간행물에 최상의 색인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연간물종합목록은 그런 연간물에 대한 목록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등이다. 실용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기준과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문 준법주의자가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의 요구를 무시한 채 또는 무조건 일정한 표준화만 이루어고 하나의 기준을 정하려고 할 경우에 실용주의적 입장에서서는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에서 각기 다른 요구를 강조하게 된다. 즉 관종별 도서관들이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며, 그들의 목록을 표준화하는 것은 많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화하려는 경향은 계속되어 왔다. ALA 목록규칙, LC카드의 사용, 종합목록의 개발, 문헌정보학과에서의 목록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의 운동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LC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여야만 했다. 이것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기보다는 약간 유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도서관들이 개별도서관의 유형에 적합하고 적절한 것보다 LC규칙을 많이 채택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sborn의 '목록법 위기론'에서의 비판과 그것을 수용한 ALA 및 의회도서관에서의 새로운 목록 규칙의 제정의 경위는 목록규칙제정에 관한 새로운 요건의 출현을 의미한 것이다. 그 요건은 1949년 이후의 목록법, 특히 목록규칙의 새로운 전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ALA 1941년 예비판에서부터 1949년의 목록규칙의 성립까지의 사이 ALA 목록규칙개정위원회가 가장 고심했던 문제점은 목록규칙제정의 원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였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는 항상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의 판단을 강요당하였다(Gorman 1941, 126-127). 하나는 일상적인 목록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목록작성자의 요구가 있는

가, 목록규칙은 특수한 경우를 포함하고 기입법, 기술법상 일상적인 작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의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요구는 Osborn이 지적인 '조문준법주의적 이론, 완전주의적 이론, 서지학적 이론'과는 다른 의미로서 구체적인 목록작업을 위한 법전을 구하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목록개정위원회가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 것은 경제성이 높고, 효율적인 목록작업을 가능케 하는 간략목록규칙을 구하는 도서관 관리자 간의 요구였다.

목록작성자가 요구한 것으로 안내하는 것은 목록작성상 처음에 나타난 문제의 처리법을 전례, 판례로서 중시한다는 생각으로 Pannizzi 이래 목록규칙편성의 하나의 원리였다. 이 원칙을 판례법적 원리라고 한다면 또 한가지는 Cutter로 대표되는 성문법적 원리이다.

판례법적 원리에 기초한 규칙은 목록실무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뜻밖에 만나는 다양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처리법을 전례로 하고, 그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우에 관련하여 처리법을 통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한편 성문법적 원리에 의한 목록규칙은 일상적인 목록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하는 처리법을 그러한 많은 경우에 공통되는 몇 가지, 최소한 일반원칙을 도출하여 그것을 통일적,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것이다.

1941년 ALA 예비판은 판례법적 원리에 의한 것으로 아무래도 목록작성자의 요구가 첨가되어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해 Osborn의 비판이 가해졌다. Osborn은 목

록실무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이론에 따라 간략목록규칙의 필요성을 제창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성문법적 원리에 기초한 목록규칙의 제정과 일치시키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다양한 경우 문제처리를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개별도서관의 목록환경에 있어서도 그 처리법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문준법주의이론은 표준적인 조직화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완전주의이론은 기술을 간략화를 선호하지 않고, 서지학적 이론의 지지자들은 봉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실용적 이론은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론이다. Osborn은 후자의 이론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정보자료의 다양화, 정보 환경과 정보기술의 혁신 등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도 목록법 이론을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41년에 '위기는 목록의 역사에 도달하였다' (Osborn 1941, 410)고 한 이 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료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도서관 현장에 대한 경종-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불길한 징조-을 의미한 것이다. 지금부터 56년 전의 위기상황은 지금도 똑같이 활동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6. Seymour Lubetzky의 目錄法 理論

20세기 기술목록의 가장 위대한 이론가 또는 목록법 전문가로 잘 알려진 S. Lubetzky는 1953년에 '목록규칙 및 원칙' (Cataloguing Rules and Principles : a critique of the ALA rules for entry and a proposed design for their revision)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록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Tripathi 1978, 38). 그는 당시 LC에서 서지 및 목록정책의 고문이었었는데 ALA규칙(1949)에서 단체저자를 규칙에서 취급하는 것과 규칙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과 원칙을 논의하는 특별회합에 참석하여 줄 것을 초청받았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그의 보고서는 목록법 규칙을 편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와 전망을 갖게 하는 핵심을 관통시키는 분석이었다.

Lubetzky는 1949년에 발행된 ALA규칙은 특별히 학회(societies)와 협회(institution) 간의 유사한 조건, 불필요하고 비실체적인 차별성을 충족시키려는 규칙의 중복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료의 분산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장황하고 혼란을 가져온 규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의적인 규칙들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차이가 나는 특수한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하였다. 기타 대부분 이전 규칙에서처럼 ALA규칙도 어떤 유형의 도서관에서도 모든 유형의 자료를 목록작성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해 주기 위해 시도된 열거식 규칙이다. Lubetzky의 목적은 정선된 규칙으로 '저작의 형태'

(type of work)보다 '저작성의 상태' (condition of authorship)에 기초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었다(Tripathi 1978, 39).

1949년의 의회도서관 목록기술규칙은 매우 단순화된 규칙으로서 전문가들에게 일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기술을 위해 단순화된 규칙의 성공은 기입과 표목을 위한 규칙의 유사한 단순화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촉발시켰고, 1951년 목록 및 분류분과위원회의 정책 및 연구위원회는 "목록기술법에 관한 연구" (Studies in Descriptive Cataloging)를 발표했던 S. Lubetzky에게 저자 서명저록을 위한 1949년의 규칙에 대한 비평을 요청하였다(Wright 1976, 38).

그 결과 1953년에 그는 "목록규칙과 원칙"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에서 그 규칙의 모순점과 부적절성을 분석하여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ALA규칙에 대해서 "AACode의 연장이며, 유사한 상태를 여러 가지 규칙으로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록원칙이 결핍된 규칙의 나열 (Lubetzky 1972, 208-210)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6.1 目録法 原理論

'목록규칙과 원칙'의 보고서는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 1부는 '이 규칙은 필요한 것인가' (Is this rule necessary)이다. 여기에서 그는 이 규칙은 일관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칙 1조부터 41조까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철저하게 '아니오.'라는 해답을 내렸다. 그는 여기에서

특히 불필요한 규칙의 급증, 특정규칙에 대한 일반원칙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출판물의 유형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시도로부터 야기되는 상호 적절하지 못한 관련성과 불일치성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빈약한 어휘 (poor wording), 부적절한 정의 및 구별, 부적당한 하위관계의 잘못된 구조관계, 비논리적 이유, 틀리기 쉬운 예들, 그리고 조건보다는 규칙을 강조하는 것 등이 비판의 주요소들이었다.

이 보고서의 제 2부에서는 '단체의 복잡성' (The Corporate complex)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단체저자에 대한 규칙을 분석하였다. 단체저자의 규칙들을 역사적 발전순으로 규명하였는데, Cutter에서부터 ALA(1949)규칙에 이르기까지 단체저작성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혁신을 취급하였다. 또한 ALA(1949)규칙에서 성문화된 단체저자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다루고 있다.

단체저자에 대한 그의 관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자격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단체명을 사용함으로써 저자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저작물을 사실상 단체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은 필자의 공식적인 자격에 의해서이며, 공식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 의해서 쓰여진 자료일 때이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개인의 공식적인 임무의 범위 내에서 자료가 쓰여졌다는 것 또는 필자가 공적인 자격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분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Lubetzky는 이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판당국과 같은 일종의 기준

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어떤 상황에서는 연계되어진 단체의 저작물로서 특정한 출판물을 취급하는데 부분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의 개념을 확대시켜 단체저자를 저자의 개념에 수용하여 이른바 '저작성' (authorship)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Lubetzky는 단체저자에 대해서 그 역할을 크게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61년의 '파리원칙' (Paris Principle) 회의에서 '단체저자'의 골자로 채택되게 되었다.

제 3부는 '규칙을 위한 계획' (Design for a Code)인데 여기에서 그는 목록의 목적과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자신이 언급한 내용은 1) 저작의 특정판, 어떤 도서관에서 특정 발행물의 소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2) 도서관 소장자료 중 주어진 저자, 주어진 저작의 판, 또는 번역서를 한 가지 형식의 저자명 아래서 이용자가 목록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규칙은 원칙과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의 2가지 목적은 때때로 대립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는 해결책으로서 이것이 필명 또는 익명의 서명이든 표제지에 나타난 대로 이름의 형식 아래에 기입하는 Panizzi의 원칙으로 회귀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서지적 조건과 원칙으로서 Lubetzky는 '저자가 알려진 도서는 그 저자 아래 기입해야 하고, 저자를 모르는 도서는 서명 아래에 기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단체를

위한 원칙은 '단체의 이름으로 간행된 출판물-단체의 출판물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리고 단체의 위임을 받은 커뮤니케이션-은 단체명 아래에 기입한다. 기타 출판물은 그 도서를 준비한 개인이나 단위 아래 기입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제 4부는 이전의 초안의 결과로서 야기된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는 이 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규칙제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규칙의 제정시에 기본목적으로 동의하는 데 기본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상기의 이러한 비평에서 얻어진 기본적인 목록법의 이론들은 규칙의 일치성, 포괄성, 경제성 원리들이 추구된 것이다.

그의 목록법의 이론은 기입과 표목은 형식주의에서 기능주의로, 규칙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복잡한 규칙에서 간소화된 규칙으로 전환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목록원칙을 기초로 한 기존목록규칙의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였으며, 실용적인 목록원칙을 주장하였다. 실용적이란 의미는 목록작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충족시켜 주는 이론과 규칙의 성안이다.

Lubetzky의 아이디어는 광범위하게 환영받았으며, 1961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ICCP를 가능케 하였다. Lubetzky의 Code of cataloging rules : author and title entry : an unfinished draft (ALA 1960)에 기초한 원칙의 초안이 대표단에 의해 준비된 규칙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실무보고서와 함께 토

론하기 위해 이 회의에 제출되었다. '원칙성명' (Statement of principles)에 대한 최종판이 채택되고 참석자들은 수용한 원칙에 동의하면서 개정된 규칙을 위해 그들 각 개별국가에서 작업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이후 탄생된 AACR도 이러한 국제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규칙 중 하나이다. 그래서 Lubetzky는 목록규칙의 국제표준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ALA 규칙(1949년판)에 대해 그의 비판은 영미 양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1949년판에 대한 오랫동안 비평을 해 온 Jolley는 Lubetzky의 연구를 "과거 10년 동안의 파괴적인 비판 중 가장 확실한 표현" (Jolley 1954, 78)이라고 하였으며, M. L. Prevost는 "희망의 선구자" (Prevost 1954, 73-76)라고 평가하였다.

Lubetzky 보고서 출판 직후 ALA목록규칙 개정위원회에서는 1956년에 다음과 같은 7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작업에 착수하였다.

- 1) 일치성
- 2) 포괄성 : 규칙은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함시켜야 하며, 표목규칙과 함께 기술규칙을 재결합시켜야 한다.
- 3) 경제성 : 규칙은 편목의 경제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만 선택할 때에는 단순성보다는 명료성을 택하여야 한다.
- 4) 목록의 실제적 요구는 강조되어야 하지만, 도서관교육에서 규칙의 이용은 또한 기본적인 목적과 갈등이 없을 때에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5) 재편목시 포함된 양은 변화가 바람직스럽다고 할지라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6) 비록 기입을 규칙이 저자-서명을 위한 규칙들이 명료하게 포함되거나 또는 특정유형의 자료를 위한 기입이 부가될지라도 규칙은 저자-서명기입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표준규칙은 일반적으로 연구도서관 간략편목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선택규칙은 필요시에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기는 데에 제시되어야 한다.

7) 영국도서관협회는 규칙의 개정에서 취해진 모든 단계를 알려야 한다.

목록에 대한 실용성이란 이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기능을 주는 목록인데, 이는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에서 주창하였던 '이용자 편의성' (public convenience)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Osborn이 주창한 4가지 이론 중 '실용주의적 이론'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의 근본적인 접근은 미국식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961년 9월 1일자 '도서관지(Library Journal)'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도록 이끌었던 목록규칙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인상 깊은 진술을 하였다. "목록의 문제점, 목표, 원칙, 그리고 방법의 기본적인 재조사를 위한 시간이 바야흐로 도래하였고, 인지된 목표, 원칙, 방법에 따라 우리의 규칙을 재구축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였다.

7. S. V. Houten의 目錄法 理論 및 觀點

Stephen Van Houten은 1981년에 '목록의 철기시대론' (In the Iron Age of Cataloging) (Houten 1981, 362-373)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본 논문은 LRTS 25주년 기념 논문대회 은상 수상작으로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화 속에서 황금기는 평온, 평화의 시기이며 영원한 봄이다. 청동기는 투쟁의 시기이고, 철기 시대는 정의와 경애가 사라진 산고의 시대로 기술되고 있다. 역사상 청동기 시대는 금속이 정식으로 처음 사용된 기술개발의 시기였다. 야금술의 발달은 도시화를 병행시켰다. 그리고 노동의 전문화도 요구되었다. 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의 경제적 쇠퇴를 기반으로 계속되었다.

Cutter도 황금기 시대의 은유를 19세기 목록의 역사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20세기 목록의 역사는 이 은유를 확장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LC 목록 배포서비스는 청동기 시대의 목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서들은 자관의 목록에다 LC 목록을 접목시켰다. 편목은 더 이상 영세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적 도시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집중화는 목록규칙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의 기술은 전통적인 편목관행에서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다양한 접근점에 의한 검색능력의 기본기입어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시켰다. 기계가독형으로 편목 전환을 간단하게 하고, 이러한 기계가독데

이터의 공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기술적 편목 실행은 목록레코드의 요소에 명확한 부호인 구두점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outen은 목록발전의 이론을 신화 속의 황금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를 도입하여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Eugene. Hanson과 Jay E. Daily가 목록과 목록법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재산목록의 시대(age of inventory), 검색리스트의 시대(age of finding list), 그리고 자주성과 재평가의 시대"(age of sovereignty and scrutiny) (Hanson & Daily 1970, 242-298)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논리이다. Houten의 목록법의 관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7.1 目錄法の 황금기시대(golden age of cataloging)

C. A. Cutter는 1904년에 그의 '사전체목록규칙'의 제 4판에서 "여전히 나는 편목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순수한 기쁨을 준 많은 난점들과 쟁점들은 더 이상 흥미를 자아나게 하지 않는다." (Cutter, 1904)라고 목록 이론의 황금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제기하고 있다.

Cutter는 그의 '사전체목록규칙'의 4판을 발행하기를 주저하였다. 이것은 LC가 1901년부터 시작한 카드배포 서비스제도가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미국에서 목록에 대한 사정이 그동안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LC가 모든 도서관에게 모든 도서에 대한 카드를 제공할 때까지 4

판이 사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언급한 황금시대의 절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록규칙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목록규칙은 1841년의 Panizzi의 BM 목록규칙, 그리고 1852년의 Jewett 목록규칙의 발행에 이은 것으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르네상스기의 인문주의와 인쇄술의 발명으로 고무된 18세기 계몽사상은 합리주의 철학과 기계적인 자연관, 민주적인 정치사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문의 진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체계화하고 통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서구인들의 사상은 백과사전식 목록의 편찬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산목록의 시기를 거쳐 검색성이 중시된 도서관목록이 편찬되었으나 자료의 급증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색인의 기능을 요구하게 되어 목록의 작성과 표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목록규칙의 제정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른 것이다.

목록사에 있어서 황금기는 19세기 목록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일련의 목록규칙들이 자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목록규칙이 탄생된 것을 의미한 것이다. Panizzi 규칙, Jewett 규칙, Cutter 사전체 목록규칙 등이 황금기 시대의 대표적인 산물들이다. 목록작성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 즉 목록규칙의 탄생에 대한 메타포로서 황금기라는 용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평화와 평온이라는 은유는 목록 규칙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이에 대한 어떤 논쟁거리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혼돈으로부터 해방'은 규칙화된 목록규칙의 탄생에서 기인한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개별도서관에서 목록규칙에 의한 준법주의의 정신이 팽배된 상황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컨대 목록규칙의 탄생과 기본기입의 개념도입에 대한 절대적인 왕권주의가 확립된 시기로 볼 수 있다.

7.2 目錄法の 靑銅器時代(bronze age of catalogin)

1901년부터 배포되기 시작한 LC목록 서비스는 목록의 청동기 시대를 선도하였다. '순진무구한 기쁨의 공급'은 이제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일관성 있는 목록의 이론적 목적은 특별한 실질적 고려대상이 되었다. LC 복제목록의 유용성은 목록규칙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촉진시켰다. 왜냐하면 LC 목록은 표준이 되었으며, LC에서 결정한 모든 목록 요소에 결정사항은 논쟁의 잠재적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의 여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이 공식화되고 규칙 수가 많이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ALA 목록규칙을 기반으로 한 실무적 목록법은 도서관에 확대시킨 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900년 LC에서는 목록카드 배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속하게 최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목록정보를 도서관에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각 도서관은 구입한 도서에 대한 목록을 주문할 수 있었으며,

LC 감독하에 인쇄된 카드는 직접 우편으로 각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목록과정이 능률적으로 되었으며, 이용자는 보다 빨리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LC는 권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배포된 목록의 수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첫째에 대략 30,000매였던 것이 1926년쯤에는 850,000매가 넘었다.

몇해에 걸쳐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1930년대에는 H. W. Wilson 사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용 카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40년대에는 주립도서관도 카드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출판되기 이전에 카드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MARC 레코드가 표준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추세는 목록법의 철기시대로 연결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Cutter의 사전체목록규칙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수가 대폭 증가된 것이다. 1876년 초판과 1904년 4판과를 단순 비교해 보면 이 목록규칙은 28년 만에 2배로 확대되었다. 즉, 초판은 총 89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4판에서는 173페이지까지 증면되었다. 정의도 이전 판보다 페이지 수가 배로 증가되었으며, 저자 기입에 관한 규칙은 각각 51개조에서 119개조로, 서명기입은 24개조에서 41개조로, 주제기입은 22개조에서 28개조로 증가되었다. 또한 기술에 관한 조항도 102개조에서 148개조로 증가되었다. 이 시대에서는 목록은 “표준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정교한 기술”이 되었다.

또한 Lubetzky의 ‘목록규칙과 원칙’의 발

행으로 황금기의 이론적 경건함으로 되돌아왔다고 생각하였다. 이 저서의 1장에서 그는 1941년에 발행된 AIA 목록규칙에서의 너무 방대한 양의 규칙들을 검토한 후 각 조항에서 ‘이 규칙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규칙을 위한 계획’이라는 3장에서는 Cutter가 최초로 공식화한 이중적이고 모순된 목적들을 재언급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였다. Lubetzky는 2번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목록의 완벽함과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도서관에서 이상적이고 그럴 듯한 것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

Lubetzky는 “목적이란 본래 모순된 것이고, 그 모순은 규칙의 변화에 반영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두 개의 모순된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그 여부’를 묻고 있다. 그것들의 조화를 위해서는 목록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한번 조직된 목록은 개정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완전히 달성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들은 목록규칙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음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ubetzky는 기본기입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다. 그는 목록의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도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표제지의 형식에서 명확한 인식표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Cutter의 위대한 두 번째 원칙인 ‘알려진 저자의 저작들은 그 저자 아래 기입되어

야 하고, 알려지지 않은 저자의 저작들은 그 서명 아래 기입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에 이론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는 저자가 왜 서명 뒤에 기본기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많은 서명들은 충분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저자명하에서 부차적인 단서로서는 적절하다고 하였다.

목록의 청동기 시대는 1901년 미의회도서관에서 배포하기 시작한 인쇄카드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1개관의 절대적인 전제주의적인 성격이었지만, 목록규칙에 대한 논쟁을 황금기 시대의 정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을 야기시키는 촉진제가 된 것이다. 미의회도서관에서 적용시킨 목록규칙이 서비스를 받던 회원도서관들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신화에서 청동기는 투쟁의 시대라고 은유하고 있는데 목록사에 있어서 목록규칙에 대한 지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준 것이다.

요약컨대 목록규칙의 다양한 논쟁시기로서 그 기능의 확대 또는 이용자 측면에로의 전환이며, 그래서 접근점으로서의 기본기입의 이론에 대한 회의감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목록법의 발전단계의 '검색리스트의 시대'와 논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3 目錄法의 鐵器時代(iron age of cataloging)

온라인목록의 출현은 목록의 철기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 철기시대의 의미는 Hanson과 Daily가 지칭하고 있는 목록의 "자주성과 재평가의 시대"(Hanson & Daily 1970, 242-298)에 해당하며, 청동기 시대의 목록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컴퓨터의 위력과 공간의 원근거리에 상관없이 이용자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사서들로 하여금 이전의 목록작업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하였고, 다른 이들도 재차 이 점에 대해서 긍정하도록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분리된 소스레코드(source records)의 파일과 그런 레코드들을 지시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전 또는 여러 개의 사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때 소스레코드로부터 추출되며, 이들 레코드는 검색하기 위하여 미리 정의된 탐색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의 위대한 능력은 인쇄색인이나 카드색인 혹은 목록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의 레코드에 용어들을 할당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인쇄된 검색도구보다 더 상세한 색인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시스템들은 이들 용어를 논리연산자에 의해 결합되도록 하였다.

탐색을 실행할 때 컴퓨터는 동적으로 그 자

료를 배열하고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소스레코드는 탐색전략에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는다. 컴퓨터는 부합되지 않는 소스레코드로부터 검색된 자료를 분리시키면서 탐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집합으로 검색된 항목을 선정한다. 문제는 어떻게 목록과 소장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서를 도와 줄 이러한 동적 배열과 선정의 특징을 이용하는 자동화된 목록을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철기시대의 논쟁거리는 이 설계를 어떻게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가 핵심어이다.

많은 도서관에서 목록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CLC 시스템은 터미널에서 직접 탐색하려는 도서관이용자들이 참고하기 위한 온라인 목록으로 설계되었다. Frederick G. Kilgour는 AACR 목록은 불완전하므로 온라인목록을 위한 훌륭한 모델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AACR 목록은 저자명목록과 서명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AACR에서의 저자명목록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저작(예컨대 무저자명저작, 3인 이상의 공저자에 의한 저작)에 대한 기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모델이다…. AACR 서명목록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AACR에서 서명이나 부출서명하의 기입에 대해 6개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꽤 많은 예외들이 포함되어 있다”(Kilgour 1979, 35-36).

Kilgour에 의하면 도서관은 서명을 반드시 지니고 있으므로 온라인목록은 서명목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레코드의

구축을 위해 표목처리과정이 레코드에 접근점을 부여하는 동안 저자와 서명필드로부터 구축된 키를 탐색해 보면 그 키는 무엇이 기본표목으로 선택되어지든지 상관 없이 구축된다.

모든 저자명필드와 서명필드는 동일한 우선권을 갖는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기본기입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미리 정의된 어떤 저자 또는 저자 필드도 적절한 탐색키를 양산한다. 기본기입과 부출기입 사이에는 접근점으로써 어떤 차이도 없다. 컴퓨터는 카드나 책자형목록에서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접근점의 처리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전제적인 3두정치(전통적인 서명, 저자명, 주제명 등에 의한 검색방법)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Kilgour는 단호하게 “온라인목록의 다중검색능력으로 인해 기본기입의 개념은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는 목록의 국제화시기와 기계화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968년 MARC의 출현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수작업에 의한 정보환경과 온라인정보환경에서 오는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목록의 기능은 한정적인데 온라인목록은 거의 무한정이라는 점에서 목록규칙에 대한 재정립과 접근점인 기본기입의 무용론이 대두된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경애가 사라진 시기로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목록규칙에 대한 신념과 기본 기입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무너져 버린 정보환경에서의 딜레마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지레코드의 작성과 조작과 검색의 관점에서 온라인목록은 수작업목록과는 크게 다른 특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성능이 AACR2R에 있어서의 현행의 규칙에 대한 재설계를 필요로 하여 AACR2R은 전산화 이전의 환경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온라인목록의 구축에는 적절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AACR 과 MARC 포맷은 상호의존적이므로 한편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와 재설계는 다른 한편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8. 결 론

이상과 같이 도서관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검색도구인 목록을 작성하고 구성하는 데 응용되는 목록법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법 이론의 접근방법은 학자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1) 기능적 접근법, 2) 서지조직화론적 접근법, 3) 색인시스템으로서의 접근법이다.

둘째, 전통적인 목록의 기능은 검색기능, 식별기능, 소재지시기능 등으로 볼 수 있었으나 온라인환경에로의 변화로 특히 OPAC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검색도구의 기능과 목적이 기존의 목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도록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제한적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공개적, 논리적인 공간, 목록 중심이 아닌 전문 중심, 소유개념이 아닌 공유개념, 자료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 시간

의존적 서비스가 아닌 시간 독립적 서비스라든가 또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표준문제가 사소한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등 상당히 많은 요소들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셋째, 목록법의 기본 이념은 관리와 이용자 검색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발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반면에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주로 목록법이 발전되었다. Cutter의 RDC에서부터 AACR 2R에 이르기까지는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목록법의 근본이념은 '이용자 편의성'이라 할 수 있으며, '실용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용자 편의성 또는 실용성 측면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넷째, 목록법 이론을 규명한 학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은 Cutter, Osborn, Lubetzky 그리고 Houten 등이라고 할 수 있다. Cutter는 이용자 편의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Osborn은 '목록법 위기론'에서 '준범주의적 이론, 완전주의적 이론, 서지학적 이론 및 실용주의적 이론'으로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당시까지 개발된 목록법을 분석하여 전자의 3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마지막 이론인 '실용주의적 이론'에서 목록규칙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으며, Lubetzky는 현대목록법의 근간을 이루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로서 1953년에 발표한 '목록규칙 및 원리'에서 실용성의 관점에서 목록법의 논리를 구축하였다. 한편 Houten은 1981년에 '목록의 철기시대론'이라는 논문에서 신화

속의 황금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를 목록법의 발전단계에 도입하여 목록법의 황금기시대, 목록법의 청동기시대, 목록법의 철기시대로 구분하여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이 논리 역시 실용성에 바탕을 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OPAC의 발전으로 목록법의 실용성은 더욱더 요구되며, 표준화도 강하게 요구된다.

다섯째, 온라인 환경에 관련해서 AACR2와 AACR2R에 관한 문헌의 논평은 이 규칙이 온라인 목록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아직도 불확실성과 불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규칙에 있어서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AACR2R은 온라인목록의 모든 장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AACR2R은 대체로 전산화 이전의 환경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온라인목록의 구축에는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지레코드의 작성과 조작과 검색의 관점에서 온라인목록은 수작업목록과는 크게 다른 특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성능이 AACR2R에 있어서의 현행의 규칙에 대한 재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편목규칙의 재설계는 개념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고려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카드목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접근점으로서 사실상 1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기본 저록의 개념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온라인환경에서 아직도 미해결의 원칙으로 남아 있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AACR2의 적절성에 관한 문헌은 대부분 그

성격상 서지기술적인 것이며, 이 논제에 관한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 규칙의 가능성 있는 변화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B. Tillett(1992, 111)에 따르면 "... 지속적인 경험적 연구가 아주 바람직하고 그것은 미래의 편목규칙으로 구체화 되어야만 한다." 온라인환경에 대한 편목규칙의 적절성의 개념에 관련해서는 문헌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그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M. Carpenter(1992, 291)는 "목록기술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제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적 혹은 경험적 연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

변화는 정보처리기술과 서지적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새로운 세계의 뚜렷한 특징이다. 문헌정보학은 건전한 변화를 위한 고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편목규칙도 예외가 아니다. 본 논문을 결론내리기 위해서 AACR2와 AACD2R을 편찬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M. Gorman(1989, 183)의 말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편목은 하나의 과학적인 예술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심을 발휘하게 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그들이 작업하는 범위 내에서 항상 그 구조에 대해서 마음을 쓸 것이라고 재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생기는

결과의 변화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건전한 반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짜증나게 하는

정신이상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참 고 문 헌

- 南台祐. 1982 目錄에 있어서의 標目法の 變遷考 : 特히 英美系 目錄規則을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桂 啓壯. 1995. OPAC의 變용 : 구미의 동향을 중심으로. 현대의 도서관, Vol. 33, No. 4.
- 志村尙夫. 昭和 56年(1981). 目錄學序說 : 원리와 사례에서의 접근법. 東京, 學藝圖書(株)
- Ayres, F. H. 1995. Bibliographic Control at the Cross Road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 20, no. 3.
- Cutter, C. A. 1876. Rules for a print dictionary catalog. In U. S. Bureau of Education. Special report on public libraries. pt. 2.
- Cutter, C. A. 1904.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GPO.
- Carpenter, Michael. 1992. The Narrow Rugged, Uninteresting Path Finally becomes Interesting : A Review of Work in Descriptive Cataloging in 1991 with Trail Marks for Further Research. *LRTS*, Vol. 36, No. 3.
- Davinson, D. 1981. *Bibliographic control*, 2nd ed. London, Clive Bingley.
- Dunkin, P. S. 1969. *Cataloging U. S. A.*, Chicago, ALA.
- Gorman, Micheal. 1989. AACR2R : Editor's Perspective. *LRTS.*, Vol. 33, no. 2.
- Hanson, E. & Daily, J. E. 1970. *Catalog and Cataloging*, in *ELIS.*, Vol. 4. New York, Marcal Dekker.
- Hoution, S. V. 1981. In the Iron Age of Cataloging.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25, No. 4.
- Hunter, Eric J. 1974. *Cataloguing: A Guidebook*. London, Clive Bingley.
- Immroth, J. Ph. 1971. *Library Cataloging : guide for a basic course*. Scarecrow Press.
- Jolley, Leonard. 1954. Review of Seymour Lubetzky's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Journal of Documentation*, X.
- Kilgour, F. G. 1979. Design of Online Catalogs, in Maurice J. Freed-

- man and S. Michael
Malinconico, eds., *The Nature and Future of the Catalog*. Phoenix, Ariz., Oryx Pr.
- Lubetzky, S. 1853. *Cataloging Rules and Principles : A Critique of the A. L. A. Rules for Entry and Proposed Design for Their Revision*. Washington, D. C., LC.
- Lubetzky, S. 1956. *The function of the catalog,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17.
- Oberman, C. 1991. *Avoiding the Cereal Syndrome : or, Critical Thinking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Library Trends*, Vol. 39, No. 3.
- Osborn, Andrew D. 1941. *The Crisis in Cataloging*. *Library Quarterly* 11(October). pp. 393-411.
- Prevost, M. L. 1954. *Lubetzky Report : Harbinger of Hope*, *Journal of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X.
- Shaw, W. 1988. *Technology and Transform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 *Libraries and the Search for Academic Excellence*, ed. P. S. Berivik and R. Wedgworth.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 Tillett, Barbara. 1989. *Bibliographic Structures : The Evolution of Catalog Entries, References, and Tracings,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New York, Academic Press.
- Tripathi, S. M. 1978. *Modern Cataloguing: Theory and practice*, 2nd ed. AGRA-3, Shiva Lal Agarwala & Co.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1971. *Statement of principles*, adapted at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Paris, October, 1971.
- Annotated Edition with Commentary and Examples* by Eve Verona.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ing.